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10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         |          |           |           |           |
|---------|----------|-----------|-----------|-----------|
| 미 사 성 가 | 입 당 (34) | 봉 헌 (210) | 성 체 (174) | 파 건 (48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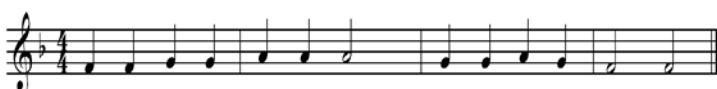
제1독서 | 2역대 36,14-16.19-23

화답송 | 시편 137(136),1-2.3.4-5.6(© 6-ㄹ)

◎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짓노라.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비파를 걸었노라. ◎  
 ○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올려대는구나.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한 가락 불러 보아라.” ◎  
 ○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굳어 버리리라. ◎  
 ○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

제2독서 | 에페 2,4-10

복음환호송 | 요한 3,16 참조



Praise to you, Lord Je- sus Christ, King of end-less glo- ry!

복 음 | 요한 3,14-21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 날짜   | 미사해설   | 독서             | 복사    |
|------|--------|----------------|-------|
| 3/4  | 이 그레이스 |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 박 다니엘 |
| 3/11 | 이 마틸다  | 이 요한 / 김 헬레나   | 박 다니엘 |
| 3/18 | 유 요한   |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 박 다니엘 |
| 3/25 | 이 그레이스 | 이 요한 / 김 헬레나   | 박 다니엘 |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 지난 주일 | 봉헌금   | 2 차 봉헌 | 교무금    | 미사책대금 |
|-------|-------|--------|--------|-------|
|       | \$190 | \$80   | \$1550 | \$50  |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2/24 | 황 가롤로/ 김 안드레아 | 3/31 | 유 요한/ 유 마리아   |
| 3/3  | 오 베드로/ 오 루시아  | 4/7  |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
| 3/10 | 손 아놀드/ 손 쟈마   | 4/14 | 홍 마르코/ 홍 아네스  |
| 3/17 | 이 글라라/ 장 글라라  | 4/21 | 김 요아킴/ 고 안나   |
| 3/24 | 이 요한/ 이 마틸다   | 4/28 |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다음 성체조배는 4 월 5 일 입니다.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서 만나는 시간 되시기바랍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7 시

오늘 임원회의가 오후 7 시에 있습니다.

공동체 기도 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8 시 (문의: 박 바오로)

모임 날짜가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 마르코복음과 함께 금요일 오후 7 시 (문의: 유요한)

다음 성경은 마르코복음 11,12 장을 필사하여 그것을 통독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장소는 성당 교리실 입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주일 미사 후)

다음 소 공동체 모임은 3 월 18 일 주일 미사 후 있겠습니다..

한인공동체 조식 봉사 3 월 13 일(화) st. Vincent de Paul center

한인 공동체 주최로 미국 공동체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봉사해 주실 분들은 아침 7 시 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300 Bakers St, Bakersfield, CA 93305 문의: 이 그레이스

Thanks to \$300 donation from the American community.

십자가의 길 (금요일 오후 7 시)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이 매주 금요일 마다 오후 7 시에 있습니다.

사순 특강 및 판공성사 3 월 18 일(일) 오후 6 시

중 남부 성령 기도회 지도 신부님인 정건석(프란치스코) 신부님을 모시고 사순 특강을 하게되었습니다.

특강 후 고백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이삭

환난이 왜 자랑일까?

권중오 라파엘 -SBS 보도국 스포츠부장-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지난 9일에 개막해 10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4년마다 올림픽 개최지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은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참가해 인간승리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장애인들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년 전인 1988년에는 장애인 수영 선수 2명이 패럴림픽이 아니라 최고 선수들이 겨루는 서울 올림픽 개인혼영 400m에 나란히 출전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개인혼영은 접영, 배영, 평영, 자유형 등 4가지를 한 선수가 100m씩 차례로 하는 종목으로 수영의 철인을 가리는 경기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21살인 헝가리의 토마시 다르니와 19살인 미국의 데이브 워튼. 다르니는 15살 때 눈싸움 도중에 친구가 던진 눈덩이에 왼쪽 눈을 맞아 크게 다쳤는데 헝가리에서는 그의 눈을 살릴 뻔할 방법이 없어서 독에서 7차례나 망막 수술을 받았습니다. 간신히 완전 실명은 면했지만 오른쪽 눈에 비하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워튼은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를 갖고 있어 코치가 귀엣말로 해야 겨우 알아들을 정도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다르니가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워튼이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다르니는 200m도 석권했고 4년 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도 역시 2개 종목 금메달을 차지해 올림픽 2회 연속 2관왕이란 찬란한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역경을 매일 1만 2천m를 훈련하는 초인적인 의지로 극복했습니다. 1만 2천m는 50m 수영장을 120번 왕복하는 거리로

그는 6년 동안 지구 반바퀴를 헤엄쳤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로마 5.3-4)라고 말했습니다.

7년 전 제가 가톨릭 신자가 되어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환난을 어떻게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지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한 개인에게 매우 큰 환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시련에 그냥 주저앉으면 환난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다르니와 워튼처럼 인내하고 더욱 정진하면 바오로의 말처럼 희망이 싹트고 자랑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난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인내하고 수양하면 새 희망이 올 것이라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난은 결과적으로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주보에서>

교리상식 주일 미사를 주님의 기도 33번으로 대신할 수 있다던데요?

수 있다던데요?

‘부득이한 경우(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 참례를 못했을 때는 목주기도 5단을 바치거나, 그 주일의 독서와 복음 봉독, 혹은 선행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4항) 이 지침에 덧붙여 평일 미사에 참례하기를 권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일미사에 빠졌다는 죄책감으로 자칫 냉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글\_「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